

#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 Factor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Stress: Focus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이래혁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RaeHyuck Lee(raehyucklee@sch.ac.kr)

###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 아산시 A지역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81명의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36.9%가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하였고, 51.5%가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 여성인 경우, 청년이나 노년에 비해 중장년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 거주지역 만족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노년에 비해 청년이거나 중장년인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범주에 속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코로나19 | 불안 | 스트레스 | 인구학적 특성 | 거주지역 만족도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stress. For the purpose,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raw data of the community needs assessment performed in A region located in Asan, Chungnam.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with a sample of 281 respondents showed that 36.9% experienced COVID-19 anxiety and 51.5% reported high levels of COVID-19 stress. Second, a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being women, being the middle-aged people compared with the young people or the old-aged people, being those without spouses, being those without their own house, and lower levels of neighborhood satisfact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experiencing COVID-19 anxiety. Third, a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being the middle-aged people or the young people compared with the old-aged people and being those without their own hous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high levels of COVID-19 stress. Based on the results, diverse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people's anxiety and stress in the midst of COVID-19.

■ keyword : | COVID-19 | Anxiety | Stres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Neighborhood Satisfaction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21년 02월 09일

수정일자 : 2021년 03월 18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3월 29일

교신저자 : 이래혁, e-mail : raehyucklee@sch.ac.kr

## I. 서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보통 전염병이 확산되면 사회 구성원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SARS와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확산되었던 당시에 간접적으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1]. 하지만 SARS나 메르스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전염성이 훨씬 강하고 전파력도 매우 빨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2]. 이렇게 국민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보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2020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했고[3], 개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율이 증가했다[4].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예, 접촉 빈도 감소, 접촉 인원수 감소, 접촉 거리 유지 등)를 통해 질병이 퍼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경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리적 고립감의 지속,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5],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었던 2020년 3월에 전 국민 중 19%가 불안 위험군으로 17.5%가 우울 위험군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약간 수그러들었던 5월에는 불안 위험군이 15%, 우울 위험군이 18.6%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속세를 이어가기 시작한 9월에는 불안 위험군이 18.9%, 우울 위험군이 22.1%로 급증했다. 2003년의 SARS 당시에도 신종 감염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경험 당시뿐만 아니라 회복한 이후에도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6]. 더해서 2015년의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감염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했다[7].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집단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심하여 단 기간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상승하여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재난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하게 됨을 보여준다[8].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9].

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10-14]이 선제적으로 수행되었다. 더해서 코로나19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몇몇 연구들[15-19]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사회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20].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및 자살 생각 수준이 높아 매우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준다[21-24].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고 구직이 더욱 어려워져 저소득층의 불안 및 우울과 삶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25][26].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정신건강 악화에 있어 특히 더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코

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불안 및 스트레스와 인구학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더해서 거주지역 만족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거주지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특성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27-30].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을 살펴본다는 점,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를 모두 다룬다는 점, 거주지역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연구배경

### 1.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에서 발병한 후 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을 악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여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거나 가족 내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켜 가족 간 갈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1-33]. 더해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34]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0년 3월, 5월, 9월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5]. 전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70세까지의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1차 1,014명, 2차 1,002명, 3차 2,063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5],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걱정과 두려움의 경우 총점 27점 중 1차 1.73점, 2차 1.59점, 3차 1.77점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경우도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총점 21점 중 1차 5.53점, 2차 4.56점, 3차 5.22점으로 분석되었다. 우울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총점 21점 중 1차 5.10점, 2차 5.12점, 3차 5.86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2020년 3월경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다소 확산세가 감소되었던 2020년 5월경에 사람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약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세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었던 2020년 9월의 조사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을 보여 3월보다 더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 2.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코로나19 불안 및 스트레스와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생태체계 관점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생태체계 관점에 의하면[35], 인간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적응은 개인의 특성과 가족, 집단 등을 포함하는 미시체계, 개인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중범위 체계, 문화 및 제도 등을 의미하는 거시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 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부적응과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코로

나19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보고되었다[5]. 또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30세에서 39세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문헌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37].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정신건강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상태도 정신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남녀에게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38] 일관된 결론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독거 여성의 경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보고되었다[39].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는 요인이 주거 상태이다. 특히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여 주거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0].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더해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주요 관련 요인으로 거주지역 만족도를 살펴본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만족도가 정신건강과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거주지역 만족도와 코로나19 불안 및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연구를 통해 경험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안정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거주 지역이 무질서한 상황일수록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29][30]. 더해서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거주지역이 소득계층에 의해 분리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 신뢰, 협력, 정보공유 등 사회적 자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7][28].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충남 아산시 A지역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A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이거나 이용 대상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을 추출한 뒤 조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훈련받은 직원들이 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 시 대면 면접을 통해 2020년 11월 첫 두 주 동안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의 파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산시의 A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취약 계층의 정신건강 상태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초 설문조사에서 총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코로나19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응답하지 않은 6개 사례를 제외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에서 1사례, 교육수준에서 2사례, 소득에서 10사례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코로나19 불안이나 스트레스 둘 중 하나에 응답한 281사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분석변수

##### 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

코로나19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Coronavirus Anxiety Scale(CAS)을 활용했다[41]. CAS는 코로나19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의 측정을 위해 최근 개발된 척도로 지난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들었을 때, 어지러움, 수면 방해, 무기력, 식욕 저하, 복통을 느낀 일수를 '전혀 없음', '하루 또는 이틀 이하', '사오일',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내내'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 각 문항을 느낀 일수의 변량이 매우 적어 각 문항을 '전혀 없음'과 '하루 이상 있음'으로 이분

변수화 하였다. 이어서 5개 문항 중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로나19 불안 경험 여부를 조작화했다. 즉,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불안이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불안 증상을 경험했는가의 여부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받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코로나19 불안과 동일하게 이분형 변수로 조작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 점수를 이등분하여 0점에서 5점까지를 낮은 스트레스 범주(0)로 6점에서 10점까지를 높은 스트레스 범주(1)로 조작화했다.

### 2.2 인구학적 특성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부호화했다. 연령은 생애주기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0세에서 39세의 청년층,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분했다.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및 소득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0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을 1로 조작화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0으로 있는 경우 1로 부호화했다. 주거 형태는 자가인 경우 0으로 자가가 아닌 경우 1로 조작화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을 1로 100만 원에서 299만 원을 2로 300만 원 이상을 3으로 구분했다. 연령과 소득은 세 범주를 지닌 명목변수이므로 회귀분석을 위해 각 범주를 이분형 변수로 만든 후 기준으로 삼은 한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범주에 대한 이분 변수를 분석에 포함했다.

### 2.3 거주지역 만족도

지역복지 욕구조사에서 거주지역 만족도는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매우 만족스럽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v.25)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첫째, 모든 변수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에 의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둘째,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와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의 연관성을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코로나19 불안 및 스트레스에 따른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표본 281명, 코로나19 불안에 응답한 263명,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응답한 272명에 대한 기술통계가 '전체 표본' 열, '코로나19 불안' 열, '코로나19 스트레스' 열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36.9%가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했고, 51.5%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보고했다. 성별의 경우 조사대상 중 여자가 70.1%로 더 많았고, 연령은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이 가장 두드러졌다. 교육수준은 분석 대상의 58.7%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77.9%가 없다고 응답했고, 주거 형태에서는 51.2%가 자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이 45.2%, 100만 원에서 299만 원이 38.8%로 분석 대상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불안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1.2%가 불안을 경험한 반면, 남성의 경우 27.2%가 경험했다.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한 연령대를 보면, 20세에서 39세가 32.4%, 40세에서 64세가 51.0%, 65세 이상이 24.1%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코로나19 불안의 경험이 41.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22.0%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거주지역 만족도는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한 경우 3.15점( $SD=.68$ 점)으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의 3.36점( $SD=.94$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에 따른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표본	코로나19 불안 <sup>a</sup>				비교 통계치	코로나19 스트레스 <sup>a</sup>			
		전체	없음	있음	비도(%)		전체	낮음	높음	비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chi^2$ 검증	빈도(%)	빈도(%)	빈도(%)	$\chi^2$ 검증	
코로나19 불안 <sup>a</sup>	-	263(100.0)	166(63.1)	97(36.9)	-	-	-	-	-	
코로나19 스트레스 <sup>a</sup>	-	-	-	-	-	272(100.0)	132(48.5)	140(51.5)	-	
성별										
여자	197(70.1)	182(69.2)	107(58.8)	75(41.2)	4.752**	190(69.9)	92(48.4)	98(51.6)	.003	
남자	84(29.9)	81(30.8)	59(72.8)	22(27.2)		82(30.1)	40(48.8)	42(51.2)		
연령										
20-39세	76(27.0)	74(28.1)	50(67.6)	24(32.4)	15.408***	73(26.8)	31(24.5)	42(57.5)	12.856***	
40-64세	115(40.9)	102(38.8)	50(49.0)	52(51.0)		110(40.4)	44(40.0)	66(60.0)		
65세 이상	90(32.0)	87(33.1)	66(75.9)	21(24.1)		89(32.7)	57(64.0)	32(36.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5(58.7)	156(59.3)	100(64.1)	56(35.9)	.160	159(58.5)	82(51.6)	77(48.4)	1.419	
대학교 재학 이상	116(41.3)	107(40.7)	66(61.7)	41(38.3)		113(41.5)	50(44.2)	63(55.8)		
배우자 유무										
있음	62(22.1)	59(22.4)	46(78.0)	13(22.0)	7.204***	62(22.8)	39(62.9)	23(37.1)	6.642**	
없음	219(77.9)	204(77.6)	120(58.8)	84(41.2)		210(77.2)	93(44.3)	117(55.7)		
주거 형태										
자가	144(51.2)	135(51.3)	91(67.4)	44(32.6)	2.192	140(51.5)	73(52.1)	67(47.9)	1.508	
자가 아님	137(48.8)	128(48.7)	75(58.6)	53(41.4)		132(48.5)	59(44.7)	73(55.3)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27(45.2)	122(46.4)	81(66.4)	41(33.6)	1.292	125(46.0)	71(56.8)	54(43.2)	6.781**	
100-299만 원	109(38.8)	100(38.0)	59(59.0)	41(41.0)		104(38.2)	45(43.3)	59(56.7)		
300만 원 이상	45(16.0)	41(15.6)	26(63.4)	15(36.6)		43(15.8)	16(37.2)	27(62.8)		
	M(SD)	M(SD)	M(SD)	M(SD)	t 검증	M(SD)	M(SD)	M(SD)	t 검증	
거주지역 만족도	3.29(.84)	3.28(.86)	3.36(.94)	3.15(.68)	2.061**	3.29(.86)	3.30(.84)	3.28(.84)	.165	

주. N=281. <sup>a</sup>코로나19 불안 변수는 263명이 응답했고, 코로나19 스트레스 변수는 272명이 응답했음. M=mean, SD=standard deviation. \*\*p<.05, \*\*\*p<.01.

마지막으로 [표 1]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난 경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가 20세에서 39세는 57.5%, 40세에서 64세는 60.0%, 65세 이상은 36.0%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코로나19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가 55.7%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37.1%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범주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43.2%, 100만 원에서 299만 원의 경우 56.7%, 300만 원 이상인 경우 62.8%로 분석되었다.

## 2.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표 2]는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와 코로나19 불안 및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코로나19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chi^2=32.993, p<.01$ )했고,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주거 유형, 거주지역 만족도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코로나

19 불안감을 경험할 위험도( $OR=.491, p<.05$ )가 낮았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51% 더 높았다. 연령의 경우 40세에서 64세에 비해 20세에서 39세( $OR=.407, p<.05$ )나 65세 이상( $OR=.279, p<.01$ )이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위험도가 낮았다. 이는 중장년이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청년보다 약 59%, 노년보다 약 72% 높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11%( $OR=2.105, p<.10$ ) 높았다. 거주 유형에서는 자가에 비해 자가 아님 경우에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64%( $OR=1.636, p<.10$ )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위험도( $OR=.733, p<.10$ )가 낮았다. 이는 거주지역 만족도가 한 단위 낮아질 때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27%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chi^2=20.118, p<.05$ )했고, 연령과 주거형태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표 2.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구분	종속변수: 코로나19 불안			종속변수: 코로나19 스트레스		
	B	SE	OR	B	SE	OR
성별(여자 기준)	-.711	.314	.491**	-.103	.281	.902
연령(40세-64세 기준)						
20-39세	-.899	.347	.407**	-.046 <sup>a</sup>	.330	.955
65세 이상	-1.276	.420	.279***	-.772 <sup>a</sup>	.374	.462**
교육수준(고졸 이하 기준)	-.025	.327	.975	-.130	.310	.878
배우자 유무(있음 기준)	.744	.393	2.105*	.390	.339	1.477
주거 형태(자가 기준)	.492	.289	1.636*	.577	.274	1.781**
월평균 소득(100-299만원 기준)						
100만 원 미만	.250	.369	1.283	-.264	.334	.768
300만 원 이상	-.101	.412	.904	.363	.400	1.438
거주지역 만족도	-.310	.167	.733*	.032	.153	1.033
상수항	.390	.700	1.477	-.215	.645	.807
Model fits	$\chi^2=32.993^{***}$ , Nagelkerke $R^2=.161$			$\chi^2=20.118^{**}$ , Nagelkerke $R^2=.095$		

주. N=281. <sup>a</sup>코로나19 스트레스에서 연령의 '20-39세'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집단과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B=-.726, SE=.434, OR=.484, p<.10).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p<.10, \*\*p<.05, \*\*\*p<.01.

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의 경우 40세에서 64세에 비해 65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 위험성(OR=.462, p<.05)이 낮았다. 또한 [표 2]의 각주에 제시된 것처럼 20세에서 39세에 비해서도 노년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 위험성(OR=.484, p<.10)이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노년에 비해 청년에서 약 52%, 중장년에서 약 54% 높음을 보여준다. 더해서 거주 유형에서는 자가에 비해 자가 아닌 경우에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약 78%(OR=1.781, p<.05) 높게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에서 응답 대상의 36.9%가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했고, 51.5%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는 전국 표본 대상의 2020년 9월 실태 조사 [5]에서 불안과 우울 위험군이 각각 18.6%와 22.1%로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측정 대상과 도구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조사 시기가 2020년 11월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가 사회 취약계층에게서 더 두드러지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의 감소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이 더 악화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청년이나 노년에 비해 중장년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비자가인 경우, 거주지역 만족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구학적 특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연구들[5][27-30][38-40]과 유사한데, 연령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이 20세에서 39세의 청년층이나 65세 이상의 노년층보다 더 코로나19 불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령대의 특성상 중장년의 경우 가구 내 돌봄이나 소득원 활동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관련 요인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감보다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약화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중장년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활동이나 대인적 교류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더해서 거주지역 만족도가 코로나19 불안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 요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주거지와 근처 지역사회로 한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이들의 주거 지역은 기초생활 대상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지역 만족

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42]에서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저렴한 임차료나 아파트와 같이 단독주택에 비해 안정적이며 편리한 거주 환경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거주지역 만족도는 1점에서 5점의 분포에서 1점에서 2점이 약 13%, 3점이 약 50%, 4점에서 5점이 약 37%로 나타나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안정성 및 쾌적성에 대한 인식[29][30]이나 소득계층에 의해 분리된 환경으로 인식할 가능성[28] 등 다양한 이유를 기반으로 하는 거주지역 만족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년에 비해 청년이나 중장년인 경우와 자가에 비해 비자가인 경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나 주거 형태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5][27-30]과 맥락이 일치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코로나19 불안과 마찬가지로 가구 내 돌봄이나 소득원 활동에 대한 부담이 더 크거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청년이나 중장년의 사람들이 노년기의 사람들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이 줄어들고 가족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주거지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다 보니 비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 불안의 경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경험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5],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배포[9], 지방자치단체별 심리지원단 운영[43]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대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구학적 관련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지원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거주지역이 낙후되었거나 무질서하여 안정감이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환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충남 아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저소득층인 표본을 활용하여 결과의 대표성에 제약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보다 세밀한 조작화에 한계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 관련 변수인 거주지역 만족도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향후 연구에서 척도를 사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은행,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2020.
- [2] 박성욱,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대응 방향," *주간금융브리프*, 제29권, 제6호, pp.3-10, 2020.
- [3] 한국은행,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지표*, n. d., <http://ecos.bok.or.kr/jsp/vis/keystat/#/key>.
- [4] 남재현, 이래혁,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중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4호, pp.215-241, 2020.
- [5]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민 건강상태 실태 조사*, 2020.
- [6] 이은환,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제414호, pp.1-25, 2020.
- [7] 신지윤, 박혜윤, 김정란, 이정재, 이해우, 이소희, 신형



- 식, “2015년 한국 메르스 사태 1년 이후 생존자들의 정신과적 문제,” 신경정신의학, 제58권, 제3호, pp.245-251, 2019.
- [8] 박주연, 강석훈, 원성두, 노대영, 김원형, “재난정신건강 평가도구,” 대한불안학회지, 제1권, 제2호, pp.91-105, 2015.
- [9] 보건복지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2020.
- [10] 이승환, *코로나19 불안지수: 감성분석과 의미*, 성남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 [11] 유계숙, 주수산나, 김종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기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제106권, 제3호, pp.5-32, 2020.
- [12] 박용천, 박기호, 김나은, 이주희, 조수린, 장지희, 정다운, 장은진, 최기홍, “COVID-19, 한국에서의 심리적 영향: 예비 연구,” 제39권, 제4호, pp.355-367, 2020.
- [13] 박상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7권, 제5호, pp.83-91, 2020.
- [14] 김승희, 이한나, 설동진,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 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영향요인,” 제38권, 제3호, pp.85-104, 2020.
- [15]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8권, 제3호, pp.447-461, 2020.
- [16] 조혜지, 김혜옥, “코로나19로 인한 C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 [17] 장은영,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예비연구: P지역 성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6권, 제1호, pp.73-89, 2021.
- [18] 성미애, 장은영, 진미정, 손서희, “코로나19에 따른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제3호, pp.3-20, 2020.
- [19] 김송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제11권, 제6호, pp.423-431, 2020.
- [20] 이상문,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제3호, pp.119-152, 2008.
- [21] J. Kim, J. Shim, and R. H. Lee, “Ma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Differences by household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25, No.2, pp.187-198, 2016.
- [22] 이재경, 이래혁, 이은정, 장혜림.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3호, pp.181-201, 2016.
- [23] 이재경, 이래혁,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552-565, 2016.
- [24] 이래혁, 이재경,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식품미보장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과 건강만족도의 매개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4권, 제2호, pp.29-40, 2017.
- [25] 조선비즈, “저소득 여성이 코로나 타격 가장 크다... 우울감·일자리 상실,” 2020년 8월 6일 기사.
- [26] 마인드 포스트, “코로나19와 상실의 시대... 재난 시기에 고위험군을 빨리 발굴하는 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2020년 9월 4일 기사.
- [27] 이흥직,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제3호, pp.25-42, 2009.
- [28] 이상록,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집, 제4호, pp.277-302, 2012.
- [29] 신화경, 조인숙, “주거환경 무질서 인식과 주관적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29권, 제2호, pp.91-99, 2018.
- [30] 문하늬, 채철균, 송나경,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2호, pp.87-103, 2018.
- [31] R. C. O'Connor and M. K. Nock, “The psychology of suicidal behaviour,” The Lancet Psychiatry, Vol.1, pp.73-85, 2014.
- [32] A. John, A. C. Glendenning, A. Marchant, P. Montgomery, A. Stewart, S. Wood, K. Lloyd, and K. Hawton, “Self-harm, suicidal

- behaviours, and cyberbullying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20, No.4, p.e129, 2018.
- [33] S. K. Brooks, R. K. Webster, L. E. Smith, L. Woodland, S. Wessely, N. Greenberg, and G. J. Rubin,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Vol.395, pp.912-920, 2020.
- [34] E. A. Holmes, R. C. O'Connor, V. H. Perry, I. Tracey, S. Wessely, L. Arseneault, C. Ballard, H. Christensen, R. C. Silver, I. Everall, T. Ford, A. John, T. Kabir, K. King, I. Madan, S. Michie, A. K. Przybylski, R. Shafran, A. Sweeney, C. M. Worthman, L. Yardley, K. Cowan, C. Cope, M. Hotopf, and E. Bullmore,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iorities for the COVID-19 pandemic: A call for action for mental health science,” *The Lancet Psychiatry*, Vol.7, pp.547-560, 2020.
- [35]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36]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3호, pp.42-70, 2015.
- [37] 강상경, 권태연,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pp.332-355, 2008.
- [38] 이윤석,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pp.103-131, 2012.
- [39] 이래혁, 이재경,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의 물질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4호, pp.29-53, 2018.
- [40] 김승희, 이한나,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 *IDI 도시연구*, 제18호, pp.129-145, 2020.
- [41] S. A. Lee, “Coronavirus Anxiety Scale: A brief mental health screener for COVID-19 related anxiety,” *Death Studies*, Vol.44, No.7, pp.393-401, 2020.
- [42] SH도시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저자, 2017.
- [43] 서울특별시,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n.d., <http://covid19seoulmind.org>.

## 저 자 소 개

이 래 혁(RaeHyuck Lee)

정회원



- 2014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박사)
- 2019년 7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아동가족정책